

'91년 전자산업 경영실적 분석



정희권
본회 기획과 대리

1. 개황

국내 전자산업의 '91년 기업경영실적 결과는 '88년 이후 고임금화, 기술개발지연, 후발개도 국추격가속 등으로 경쟁력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에서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국내경기의 둔화로 내수도 부진하여 경영지표상 최악의 수익성을 시현하였는바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90년의 13.2%에서 '91년에는 16.3%로 전년보다 향상을 보였으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경상이익률은 '90년의 1.8%에서 '91년에는 0.9%로 반감되는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했었다.

이는 매출액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원가절감 등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서 가격인상으로 전가시키지도 못하고 마진폭을 잠식당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

구 分	전 자 산업			제 조 업		
	'89	'90	'91	'89	'90	'91
매출액 증가율	2.2	13.2	16.3	7.0	18.6	17.6
매출액대경상이익률	1.8	1.8	0.9	2.5	2.3	1.8
매출액대순이익률	1.4	1.0	0.3	1.6	1.4	1.4

지금까지의 전자산업 신장을은 '88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 성장률이 25.0%로 제조업의 15.8%를 증가하여 제조업 성장을 주도했으나 '89년도 이후로는 제조업의 평균성장률을 밀들게 되었으며 작년에도 16.3% 증가로 제조업의 17.6%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이 외형상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액대 경상이익률은 '90년 1.8%에서 0.9%로 급격히 감소하여 제조업 평균 1.8%에 비해서 극히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법인세 등을 차감한 최종 영업성과인 매출액대 순이익률은 제조업이 평균 1.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인데 비해 전자산업은 '90

년도의 1.0%에서 0.3%로 저하되 전자업계내 다수의 기업이 적자경영을 한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전자업계 경영실적을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등 부문별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 외형성장을 고찰해 보면 전자산업의 매출액은 '90년도의 13.2%보다 다소 증가한 16.3%의 증가율을 기록, '89년의 2.2%라는 저조한 성장에서 벗어나 점차 상대적인 성장세의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전자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수출위주의 성장성을 구가하던 산업특성상 비중이 큰 수출부문의 경쟁력 회복보다는 내수부문에 의해 주도된 현상이라는 한계점을 노출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뿐만아니라 제조업의 '91년도 성장을 17.6%에 비하면 낮은 성장으로 그동안 제조업 성장을 주도해왔던 전자산업의 역할에 비추어 성장의 문화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총자산 및 유형 고정자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기업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기업경영에 운용된 자산의 증가를 나타내는 총자산과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은 각각 22.0%, 15.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도의 증가율인 24.2%와 18.4%보다는 낮게 성장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등 실물부문의 침체와 함께 경기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기계 등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이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단위 : %]

구 분	전자산업			제조업		
	'89	'90	'91	'89	'90	'91
매출액 증가율	2.2	13.2	16.3	7.0	18.6	17.6
총자산 증가율	16.7	24.2	22.0	24.0	23.7	21.1
유형고정자산증가율	15.0	18.4	15.1	16.3	18.8	17.1

성장성을 부문별로 고찰하여 보면 전자기기 부품은 '91년은 '90년에 비해 매출액은 15.0%로 전년도 11.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유형고

정자산은 설비의 급증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비슷한 15.9%를 견지하였으나, 이는 대외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수출부문보다는 내수부문에 의해 주도되었고, 전자부품 부문은 '91년에 21.0%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반도체 등 특정부품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가 등에 의해 주도된 것이 특징이고 설비증설 등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세와 반대로 전년보다 감소한 16.3%의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반도체 생산라인 등 대형설비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가정용 전기기구 부문의 매출액은 '90년의 14.0%에 다소 못미친 12.4%증가에 그쳐 수출·내수 모두 전년도와 보합세를 보였으며 유형고정자산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 전년도의 8.8%보다 증가한 10.4%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단위 : 증가율, %]

구 分	전자산업			제조업		
	'89	'90	'91	'89	'90	'91
전자산업	2.2	13.2	16.3	15.0	18.4	15.1
전자기기 (가정용, 산업용)	4.1	11.2	15.0	14.1	16.0	15.9
전자부품	-6.3	12.3	21.0	21.2	19.7	16.3
가정용 전기기구	10.0	14.0	12.4	12.0	8.8	10.4

3. 수익성

기업의 장래성을 가늠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이익률 측면을 보면, 기업경영에 투입된 총자본의 경상이익률은 '90년의 2.0%에서 크게 감소한 1.0%를 기록하여 제조업 평균 1.8%보다 낮은 자본이익률을 보였고 기업의 영업활동의 경영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0년의 7.6%보다 높아진 8.0%로 나타나 '91년 제조업 평균 6.6%를 상회하여 전자산업의 영업활동 성과는 제조업중에서는 대체로 활발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본 영업활동 성과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 영

업외비용 증가 등으로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90년 1.8%에서 '91년 0.9%로 급격히 감소하여 제조업의 '91년 평균 1.8%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매출액 순이익률은 제조업이 1.4%로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전자산업은 전년도의 1.0%에서 0.3%로 최악의 경영실적을 시현하여 실익이 없는 한해로 기록되었다.

이익률을 잠식하는 요소인 비용변동 측면을 보면, 전자산업의 영업이익률을 잠식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를 나타내는 매출액대 금융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 '90년의 5.8%에서 '91년에는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평균 5.7%보다는 높아 전자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총비용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전년도의 14.7%보다 다소 낮아진 14.2%를 보여 노사안정에 힘입어 임금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제조업 평균 13.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단위 : %]

구 분	전자산업			제조업		
	'89	'90	'91	'89	'90	'91
총자본경상이익률	2.2	2.0	1.0	2.7	2.4	1.8
매출액경상이익률	1.8	1.8	0.9	2.5	2.3	1.8
매출액순이익률	1.4	1.0	0.3	1.6	1.4	1.4
매출액영업이익률	6.4	7.6	8.0	6.0	6.5	6.6
매출액/금융비용	5.1	5.8	6.1	5.1	5.1	5.7
총비용/인건비	14.1	14.7	14.2	13.6	13.5	13.7

각 부문별로 수익성을 분석하여보면, 전자기부문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90년의 1.8%에서 '91년에는 0.6%로 저하되어 전자산업 평균 0.9%보다 수익성이 더욱 낮은수준이고 인건비 비중은 '89년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91년에는 총비용의 12.4%를 차지하였다.

전자부품부문은 '90년에 1.3%였던 매출액대 경상이익률은 1.7%로 상승하여 전자산업 평균 0.9%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인 반면 인건비 비중도 17.1%로 전자산업 평균 14.2%보다 높은 현상을 보였다.

[단위 : %]

구 分	매출액대경상이익률			총비용대인건비비율		
	'89	'90	'91	'89	'90	'91
전자산업	1.8	1.8	0.9	14.1	14.7	14.2
전자기기 (가정용, 산업용)	1.1	1.8	0.6	12.7	12.6	12.4
전자부품	3.2	1.3	1.7	17.7	18.7	17.1
가정용전기기구	6.5	4.4	-2.6	14.8	14.3	15.1

매출액의 증가율이 '90년도 보다 감소한 가정용 전기기구부문은 인건비 비중이 '90년도의 14.3%에서 '91년에는 15.1%증가하는 등 비용상승 요인에 의해 경상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2.6%의 적자를 시현하기에 이르렀다.

4. 안전성

전자업계의 안전성지표 중 자기자본비율은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익률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잉여금의 유보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자기자본 비율은 '90년의 25.3%에서 '91년에는 22.1%로 하락하여 제조업의 '91년 평균 자기자본 비율인 24.4%보다 낮은 실태를 보였으며 유통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90년의 105.4%에서 '91년에는 95.5%신인도가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자금 보다는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부채비율은 전년도의 295.3%에서 351.9%로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차입금 의존도도 전년의 46.8%에서 49.2% 증가하여 제조업 평균보다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러 결국 자기자본비율, 유통비율, 부채비율 등 안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전자산업의 대외 신뢰성이 저하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단위 : %]

구 分	전자산업			제조업		
	'89	'90	'91	'89	'90	'91
자기자본비율	28.5	25.3	22.1	28.2	25.9	24.4
유통비율	113.8	105.4	95.5	103.7	99.4	95.8
부채비율	250.4	295.3	351.9	254.4	286.6	309.2
차입금의존도	40.9	46.8	49.2	38.5	42.8	44.6

5. 자금조달과 운용

먼저 자금조달 측면을 살펴보면 전자업계가 전반적인 경영실적의 악화 및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증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은 주로 내부유보 등 자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 자기자금 조달률은 '90년도의 39.6%에서 36.9%로 저하 되었으나 제조업 평균적으로는 '90년도의 36.7%에서 '91년에는 37.4%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전자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더욱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

구 분	전자산업		제조업	
	'90	'91	'90	'91
자 기 자 금	39.6	36.9	36.7	37.4
증자 및 내부유보	15.9	15.3	12.5	13.6
감가상각및충당금	23.7	21.4	24.2	23.8
타 인 자 금	60.4	63.1	63.3	62.6
장기차입	21.6	15.4	19.7	18.2
단기차입	26.2	27.9	22.3	23.2
매입채무	4.8	10.2	10.1	10.2
기 타	7.8	9.7	11.2	11.0
합 계	100	100	100	100

전자업계의 조달자금의 운용측면에서는 시설투자의 둔화 등으로 고정자산 비중이 줄어 실물자산의 보유비중이 '90년의 53.7%에서 '91년에는 49.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전체로는 실물자산 비중이 '90년의 52.5%에서 '91년은 56.7%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전반적 경기악화에 의한 전자업계 투자의 위축을 지표로써 입증하고 있다.

[단위 : %]

구 분	전자산업		제조업	
	'90	'91	'90	'91
실 물 자 산	53.7	49.7	52.5	56.7
고 정 자 산	41.9	37.8	42.9	45.3
제 고 자 산	11.8	11.9	9.6	11.4
금 용 자 산	46.3	50.3	47.5	43.3
매 출 체 권	9.9	14.1	16.0	14.7
기 타	36.4	36.2	31.5	28.6
합 계	100	100	100	100

6. 생산성

종업원 1인당 생산성 지표를 보면, '91년의 종업원 1인당 매출증가율은 '90년의 16.4%보다 둔화된 15.2%를 보였고 부가가치 증가율은 11.4%인 반면 인건비 증가율은 16.8%를 보여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이 부가가치 증가율을 상회하여 생산성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비투자 효율 측면에서는, 제조업 평균으로 보면 '90년의 73.9%에서 '91년에는 74.4%로 다소 상승하여 자동화 투자 등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자산업은 투자의 축소 및 지연으로 오히려 '90년 (88.6%)보다 감소한 80.0%로 나타난 설비투자 효율의 저하를 보였다.

[단위 : %]

구 분	전자산업			제조업		
	'89	'90	'91	'89	'90	'91
종업	매출증가율	6.3	16.4	15.2	9.7	20.5
원	부가가치증가율	29.7	13.1	11.4	19.4	18.6
1인당	인건비증가율	28.7	17.2	16.8	24.9	19.0
부 가 가 칙 율	28.1	28.2	26.0	26.9	26.1	26.2
설비투자효율	96.7	88.6	80.0	78.4	73.9	74.4
노동소득분배율	50.7	53.0	55.9	51.2	52.3	53.3
노동장비율(만원)	1,608	1,947	2,488	2,100	2,470	2,985

